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 양상

서정민*

I. 머리말

〈보은기우록〉은 일찍이 정병욱 선생님에 의해 여러 차례 주목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¹⁾ 김기동 선생님은 연작으로서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을 함께 논의하여 그 유형적 특징을 논의한 바 있다.²⁾ 이후 조동일 선생님은 그 파격적인 내용의 〈보은기우록〉에 대해 대단한 문제작이라 주목하는 한편 후편 〈명행정의록〉은 인습적 가치관으로의 복귀를 표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³⁾ 〈보은기우록〉은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선행 연구자들의 관심⁴⁾을 모은 반면 〈명행정의록〉은 아직 그에 벼금가

* 아주대 강사

- 1) 정병욱 선생님은 1966년 중앙일보에 〈보은기우록〉을 소개한 이후, 「낙선재문고 목록 및 해제」(『국어국문학』44·45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9)에서 〈명행정의록〉과의 연작임을 밝혔다.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낙선재본소설의 몇 작품을 중심으로」(『문화비평』 창간호, 1979 봄,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1976 재수록)에서 작품의 창작연대를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엽으로 추정하는 한편 신분구조의 붕괴와 화폐경제시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 특징을 지적하였다.
- 2) 김기동,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이조연작소설연구1」(『도남 조윤제박사 고회 기념 논총』, 형설출판사, 1976)에서는 효도라는 주제를 현실에 입각한 문제를 통해 독창적으로 다룬 윤리소설이라고 그 특징을 지적하였다.
-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지식산업사, 1984)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지식산업사, 2001) 참조.
- 4) 신선희, 「고소설에 나타난 부의 구현양상과 그 의미」(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에서는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富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여 규범과의 관계를 논의

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고는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⁵⁾ 먼저 두 작품을 개관하여 연작으로서 전·후편의 연계 양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연작 양상의 특징적 면모를 후편의 형성 방식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보은기우록〉의 이본은 5종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명행정의록〉은 2종의 이본이 알려져 있다.⁶⁾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18권18책 〈보은기우록〉⁷⁾과 70권 70책 〈명행정의록〉이다.

II. 연작 전·후편 개관

1. 전·후편 서사 개관

전편 〈보은기우록〉은 위치덕과 위연청의 부자 갈등으로 시작된다. 위치덕은 그 조상이 벼슬에 나아갔다가 서른이 못되어 죽고 이후 가문이 쇠퇴하여 궁핍에 시달리게 된 탓에 벼슬을 자기 집안의 不好之事라 여기며 열심히 돈 모으는 일에 몰두한다. 아들 위연청은 외삼촌을 따라 글을 배운 후 상하

하였으며,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 장편소설의 창작방법」(한국청신문화연구원 한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에서는 〈보은기우록〉을 통해 독자의 흥미거리와 창작방법과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이밖에도 〈보은기우록〉에 관한 작품론은 다음과 같다. 이제춘, 『〈보은기우록〉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0, 이대진, 『〈보은기우록〉의 구조와 수용양상』,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3.

5)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으로서의 상관 양상을 지적한 것으로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89)를 들 수 있다. 전·후편 인물, 사건 등의 연계를 논의한 것으로 이밖에 많은 작품들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하 연작소설의 대체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 다만 연작을 이루는 작품들이 기술하고 있는 연작으로서의 외적 표지에 주목하여 작품 내재적인 연작 질서를 밝히는데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6) 조화웅 편, 〈고전소설이본목록〉, 고전소설연구자료총서1, 집문당, 1999 참조. 〈보은기우록〉은 표제만 〈보은기우록〉으로 되어 있고 실제 작품은 〈현몽쌍의록〉인 경우를 제외하면 4종이 된다.

7) 〈보은기우록〉, 영인교주 한국고대소설총서, 한국어문학연구소, 이화여대출판부, 1976.

귀천의 법도도 없이 取利에 눈이 멀어 가문을 추락시킨 부친을 개과시키고자 마음먹는다. 이후로 지극한 효심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아들로서 위연청의 고난이 시작된다.

재물을 초개같이 여기는 위연청은 그로 인해 부친에게 여러 차례 장책을 입게 되고 급기야 아비의 손에 죽게 되는 絶命의 순간에 求賢翁이라는 도사가 나타나 구해준다. 도사는 위연청에게 天書와 神弓, 神筆을 전해준다. 문창성의 화신인 위연청은 도사에게서 활쏘기 기술까지 익힌 후 문무과를 겸하여 장원급제하고, 이후로 출장입상하는 재주를 펼쳐 보인다. 위연청은 고위관료로 현달하면서 자연 뒤따르는 부귀를 아비 위치덕에게 보임으로써 이 익을 취하고자 스스로 온갖 천역을 감내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한다.

取利와 관련한 부자 갈등과 그 과정에서 위연청이 보여주는 지극한 효행이 〈보은기우록〉 전반에 걸친 핵심적인 서사라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백승설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혼사장애담-혼인전 백승설이 겪게 되는 遊離의 경험이나 不告而娶로 완전한 부부결합이 지연되는 사연 등-이나 위연청에게 구애하는 문벌가 여성 장미주나 설소아를 물리치는 사연 등이 결구된다.

장미주는 국구의 딸로 위연청에게 반하여 스스로 결연하고자 황제의 사헌령을 이용하기도 하고 시비로 변장하여 위부에 잠입, 위연청과 백승설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투시하며 위연청과의 결연 기회를 노린다. 한편 안도후의 딸 설소아는 남복개착하고 야밤에 위연청을 직접 찾아와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런데 설소아, 장미주 등장 사건은 전체 구성상 서사적 간밀함이 다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건이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위기 상황을 만들어가지는 않는다. 세속적인 장미주가 탈속, 고결하게 사는 위연청 부부의 삶을 보고 스스로 권태로워 참을 수 없음을 자각하고 물러난다. 또 非禮之行을 스스럼없이 저지른 설소아가 위연청의 善導에 수치를 느끼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다. 독자는 위연청부부 사이에 초래될 위기를 감지하여 숨죽이며 사건의 추이를 따라가기보다는 위연청과 백승설이 각각 설소아와 장미주에게 건네는 도덕적 훈계 발언을 경청해야 한다. 서술자는 '차권이 다

만 군자 숙녀의 헝적을 고록하기 위호미라(권15)'라는 직접적 전술을 통해 이 사건의 서술 목적과 서술 방식을 해명하고 있다.

후편 〈명행정의록〉의 중심 서사는 위연청·백승설 부부의 자녀 3자1녀의 혼사장애담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위천보-이월혜, 소예주, 낙선군주, 상병심의 결연/ 위천유-문창공주의 결연/ 위천강-양현강, 교강선의 결연/ 위월혜-사동성의 결연이 그것이다.

네 명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위천보 관련 서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가운데 소예주로 인한 사건이 작품 전반에 걸쳐 가장 크게 형상화된다. 소예주는 이월혜와 이미 정혼한 위천보를 보고 한 눈에 반하여 위천보와의 결연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간다. 전편에 나왔던 求賢翁의 筆跡을 구하여 보고는 자기 역시 위천보와의 天定緣이 있음을 알게 되지만 元位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에 주위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위천보와의 결연을 추진하고 이월혜를 모해한다. 이월혜를 모함할 때는 가장 의심사기 쉬운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헤아려 낙선군주와 위천보의 혼인을 배후조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은 자신의 소행이 밝혀져 유배를 떠나게 되고, 개과한 후 다시 위부로 들어온다.

위천유와 문창공주의 혼사장애담은 혼인전 문창공주의 실산과 계모의 혼사방해로 인한 고행담이 크게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 문창공주의 친부로 밝혀진 초왕이 위연청을 모해했던 과거지사로 인해 위천유가 잠시 혼인을 꺼리는 정도가 더해져 있다. 여러 부부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위천유와 문창공주 부부는 혼인 이후에는 거의 아무런 부부갈등도 겪지 않으면서 다른 부부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 위연청 부부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소예주가 문창공주의 방해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여겨 위천유에게 비례지행의 혐의를 덮어씌우지만 문창공주에 의

8) 고전소설의 혼사장애주지는 이상택(「낙선재본소설 연구-그 예비적 작업으로서의 혼사장애주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상택 선생님은 혼사장애주지의 유형을 기본형, 발전형, 복합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미학적 기반을 이원론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해 무사히 해결된다.

위천강과 양현강의 경우는 혼인 이전에 양현강이 겪게 되는 早失父母와 그로 인한 여러 혼사장애 사건, 혼인 이후로는 교강선의 양현강 모해 사건이 결부되어 전개된다. 위천강이 양현강과 혼사를 치르기 전 먼저 夫婦之緣을 맺은 교강선이 양현강을 모해하여 여러 사단을 빚다가 발각, 축출된다. 이후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양현강의 강경함으로 인해 부부 화합이 지연되다가 문창공주 등의 개유로 양현강이 뜻을 돌이켜 부부화합을 이루게 되고, 이후 개과천선한 교강선도 다시 받아들인다.

위혜주와 사동성의 경우는 사동성의 小人行으로 인한 갈등이 주를 이룬다. 귀하게만 자라 예의를 모르던 사동성이 가출하여 우연히 위천유의 휘하에서 그 지효와 행실의 엄정함을 보고 개과한다. 이후 환로에 나아가 위천강과 교분을 쌓던 중 위천강이 누이 위혜주를 그런 미인도를 훔쳐보고는 상사병을 앓다가 겨우 혼사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소인배들과 어울리면서 처가가 대단한 위세로 자기를 업신여긴다 하여 방자하게 굴다가 결국은 주위 소인배들의 실상을 알게 되고 위혜주 등의 도움으로 개과하게 된다.

〈명행정의록〉은 이들의 혼사장애담에 더하여 위연청의 宦路 생활을 형상화한다. 작품은 위부 자제들의 혼사담과 가문외적인 정치 사건들이 교직되어 있다.

2. 전·후편 연계 양상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은 전·후편이 각각 부모(위연청)와 자식(위천보 형제들)대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世代錄의 양상을 보이는 대하연작소설 일반과 흡사하다. 한미한 가문 출신의 주인공이 출세하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문의 위세를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 전편과, 그러한 위세를 배경으로 한 상충별렬가 자제들의 출장입상하고 혼취하는 사연을 그려 보이는 후편은 여느 대하 연작소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⁹⁾

물론 주인공 가문의 한미함과 관련된 배경은 작품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그것이 작품 각각의 주제적 의미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보은기우록〉에서는 주인공의 부친 위치덕이 士類로서의 가문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독특한 인식과 행동이 아주 특징적이다. 科舉를 통해 권세를 얻고자 하지 않고 노골적인 取利의 행위들을 서슴없이 해보이는데, 이런 양상은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사실적 세계 인식의 양상과도 상통한다.

무령백의 아들 상공자가 송조 구양수가 지은 평신당을 중수하고 그 상량문을 천금을 걸어 구하는데 양주, 항주 일대 사류들이 모두 모였다는 소문을 들은 위연청은 그들의 글을 구경하고자 그 자리에 참여한다. 그런데 위연청이 쓴 글이 좌중을 놀라게 하며 상량문으로 채택되자 상공자는 약속한 천금을 내어놓는다. 이때 좌중의 분위기를 작가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빵남의 ㄎ을벗치 흡연이 천금의 촛눈디라 교설호 빙팡이 방인의 민음을 움죽 아니 고어의 월 프론 술이 ॲ벗출 붉개 ㅎ고 누른 금이 민음을 겸게 ㅎ다 ㅎ니 잇찌 좌샹체익이 다 스류의 교만호 뜻과 문인의 청념호 지개리니 이룰 보매는 저마다 변식호물 셔닷디 못 ㅎ니 앗가 ㅎ가디로 깃거흐과 다른디라 몬져 깃거흐든 스단이 즐연이 감 ㅎ미오 이제 아쳐흐은 물욕이 스스로 동 ㅎ민가 식자의 탄을 일월 바니 군조의 겸연호를 뜯디 아녀 알디라(권5)

글하는 선비로서의 고고함과 자부심을 가진 이들이 위연청이 쓴 글을 보고는 함께 감동하였으나, 막상 상공자가 건네는 천금을 보는 순간 모두 그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민망한 분위기를 적시하고 있다. 특정 인물을 지정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모인 사류 일반이 물욕에 자신을 추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위치덕이 餓餓라는 극단적인 빈곤의 체험 결과 글공부를 폐하고 取利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고려해 볼 대목이다. 위치덕의 소행을 두고 작중에서는 여러 차례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사류의 체면을 추락시켰다고 비난하며 개선시켜야 할 대상인 것으로 서술하지만 그런 서술이 반복될수록 도리어 그 이면에 반어적으로 깔려있는 작가의 嘲笑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9)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연구』, 태학사, 1996 참조.

〈보은기우록〉이 구체적 현실에 대한 첨예한 인식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비해 〈명행정의록〉은 중세 전통적 관념에 충실한 사고를 드러내 보이는 작품이다. 살인 방화를 가리지 않는 악행을 저지른 소예주의 악행을 드러내는 과정은 이러한 〈명행정의록〉의 현실인식 양상을 잘 드러낸다.

소예주는 이월혜를 모해하고자 준비하던 것을 문창공주가 중간에서 방해 했다며 이를 한하여 문창공주의 적국을 만들고자 하소저와 위천유의 결연을 모의한다. 그 과정에서 위천유가 비례지행의 협의에 빠지게 된다. 문창공주는 소예주가 이월혜를 모함하여 수많은 악행을 자행할 때 그 협의를 감지하지만 자신의 손위 동서가 되는 소예주의 잘못을 아래사람으로서 함부로 거론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러다가 자신으로 인해 남편에게 화가 미치게 되자, 하는 수 없이 그 수하 쇄영 등을 통해 비밀리에 남편의 협의를 벗길 방책을 시도한다. 그 결과 악사를 실행하던 소예주의 수하들을 포박하고, 장차 소예주뿐만 아니라 소예주와 동조한 여러 악인들을 칭 치할 기회를 맞게 된다. 그런데 鞠問이 있기 전날밤 쇄영은 포박해 둔 선월낭과 수요에게 다음과 같이 협박한다.

(선월낭이 잡혀 오던 중) 밤을 당흐여 쇄영이 가마니 농 밧과 가 쑤지져 월네 우리 부중의 왕너흐여 숙녀(이월혜)를 희흐며 요술을 회통흐미 임의 텐신이 노흐시거늘 쏘 감히 우리 한님노야(위천유)를 범흐다가 스스로 쓰지의 쌈져시니 나도 문창군쥬의 명을 바다 너를 잡으믄 다만 한님노야를 신嬖고져 흐미로더 다만 네 계교를 바든 곳이 이시를 아느니 슈슉제스지간의 화괴를 감홀지라 만일 진국공(위연청) 면전의 츄문흐를 당흐여도 전후 간상을 직초흐되 다만 쇼부인을 거드지 말나 네 쏐흔 그 후더흐를 입어시니 만일 니부인의 옥시 발각흐여 법부 츄문을 맛난 즉 지쥬즈를 은휘치 못흐려니와 촌소의 당흐여는 다만 하쇼져를 위흐여 선초 밧꾼 거슬 복초흘 분이니 만일 쇼소져를 거든 즉 네 죽을 죄 가운더 다시 신이 업소를 면치 못흐리라 흐고 쏘 슈요를 져혀 월네 전후 간상을 직초하되 만일 윤부인 아르시는 줄 거들면 비록 장상서 노야 스로고져 흐서도 문창군쥬 스치 아니시리라 흐니 쇄영이 쥬인을 위흐여 결치부심흐거늘 엊지 쇼소저와 윤부인을 고즈흐리오만은 군쥬의 미리 가르치를 거역지 못흐리라(권36, 밑줄 인용자)

소예주나 그에 동조하여 악행을 함께 한 문창공주의 계모 윤부인의 죄상

을 거론하지 말 것을 문창공주가 미리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는 이월혜의 수하들이 소예주의 악행을 발각하고도 ‘상서(위천보)의 부인인즉 동시에 쥬뫼라 오즈서의 초평왕을 보슈호미 군신터의 아니를 아는 고로(권36)’ 낙선군 주의 부친 석부마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장을 올리게 하는 것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명행정의록〉은 악인을 처단하는 방식과 절차에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시되는 것이 관련 인물 간의 위계와 명목이다. 이런 양상은 〈명행정의록〉이 드러내는 현실인식이 기존의 사회이념이나 신분질서의 현실적 모순을 드러내보이려는 것보다는 그러한 전통적인 사회이념을 추종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은기우록〉 마지막 권에서는 위연청이 반란을 꾀한 진국을 평정하여 평진왕 작위를 받지만 위연청이 국구 사양하여 평진공으로 봉해지는 사건이 형상화된다. 그 다음에는 후편에 서술되어 있다는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작품을 종결짓는다. 즉 위연청의 3자1녀의 성장과 혼취에 대한 요약적 서술, 겨우 마흔에 致仕 낙향하는 위연청에 대한 칭송, 그 말년에 부친 위치덕이 죽은 후 過哀, 失攝하였다가 위천보의 지성으로 회생한 것, 부친 삼상을 마친 후 조정에 복귀하기를 청하는 목종 황제의 간청에 아들들만 경사로 보내고, 이후 부부 동귀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보은기우록〉은 주인공 위연청의 출생에서부터 평진공이 될 때까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형상화한다. 전편의 서술자는 주인공 위연청을 중심으로 작품을 진행한다는 언급을 누차 하면서 이른 나이에 치사하고 떠나는 것을 두고 ‘만절청풍’이라 칭송한다. 서술자는 ‘공(위연청)의 흥녹본말은 고유상편하고 만절청풍은 우고 후록’이라 하여 후편 〈명행정의록〉이 위연청 만년의 삶을 형상화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서술자는 위천보를 비롯한 자식들 각각의 별전이 있다는 점을 서술하여 후편이 자녀들의 성장 혼취 사연과 위연청 만년의 삶을 그리는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명행정의록〉은 위천보의 혼인을 본격적인 시작으로 하여 많은 사건이 형상화되어 있고, 위천유와 위천강의 서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인물이 평생에 걸쳐 받은 작위들을 모두 나열해 보임으로써 한 편의 개별 전이 시작되는 것임을 보이고 있다.¹⁰⁾ 그런데 『명행정의록』은 대외적으로 위연청과

그 세 아들이 환로를 걸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세세히 그려보이면서 위연청이 치사낙향하는 것으로 작품을 종결짓고 있다.

위연청이 떠난 후 조정에는 황제를 혼암으로 이끌게 될 인물이 베티고 있지만 연청은 이를 天定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다. 조정으로 복귀하는 세 아들에게 보신의 방책을 가르칠 뿐이다. 2년 후 있을 위지덕의 죽음은 형상화되지 않은 채 작품은 종결되고, 그리하여 전편에서 예고하였던 위연청의 過哀, 혼절과 이를 구하기 위한 위천보의 고행, 이후 위연청 부부의 삶과 부부 同歸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았다.¹¹⁾ 전편에서 예고되었던 위연청 만년의 삶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다. 〈명행정의록〉은 위연청이 마흔이 될 때까지 가문내적으로는 자녀들의 혼사장애를 적극 해결하고, 외적으

10) 위천보 혼사담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작품은 권23에 이르러 위천유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이썩의 비록 평제왕(위천보) 부부의 스격을 맞츠미 머리시나 물유본말호고 소유종시호니 위각노 문혜공(위천유)의 호구괴연을 아니 그록지 못할 고로 기간의 그 횡격을 념서하고 다시 제왕의 말노빠 니으니 스의의 시종을 보아 초청하회호라 화설 금즈광녹태우 상쥬국 문연각 태혹스 국즈체쥬 무영면 각노 위공의 명은 텐유오 주는 주예니 구석 진국공 문청순효선성 제이조오 진국절효정의부인 빅시 쇼싱이라 명부지조요 숙녀지산이니 공의 위인을 시로이 일너 알 빼 아니로더(권23)” 이런 양상은 위천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티즈 티부둘국전 티학스 더스마 디도독 도찰원 좌부도어스 넝농후 문숙공 텐강의 주는 등여니 진국공의 제삼자라(권32)” 그런데 『명행정의록』은 위연청의 치사낙향하는 시점에서 작품을 종결하여 아들들이 이런 작호를 얻어가는 과정을 작품 중에 모두 형상화하지 않고 있다. 위천보가 평제왕으로 봉해지는 사건이나 위천유가 문혜공이 되는 사건, 위천강이 영농후가 되는 사건 등은 그려지지 않았다. 이는 대하소설에서 그리 일반적이지 않은 양상으로서 『보은기우록』이 예고한 위연청 만년의 삶을 형상화하지 않고 작품을 종결한 것과 더불어 『명행정의록』의 현존 과정에 얹혀 있을 여러 조건들을 앞으로 좀더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 같다.

11) 위지덕 사후 위연청의 過哀, 失攝과 연청을 회복시키기 위한 천보의 효행이 원래 설정되었던 사건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후편에서도 보인다. 위지덕은 자신으로 인해 위연청의 몸이 약해져 장수하지 못할까 염려하니 위지덕의 처남 양소사가 위지덕이 죽은 후 연청이 과도히 집례하여 몸이 상하지 않게 미리 경계하라 이르고, 이를 곁에서 듣던 백승설은 양소사의 명감에 항복한다는 대목이 있다(권2). 전편의 마지막에 서술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동일한 사건을 전제한 서술로 보인다.

로는 국사를 살펴 명나라 세종, 목종, 신종 즉위까지 본 후 치사낙향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보은기우록〉에서 예고한 후편의 양상 그 일부만이 설정된 것이다.

〈보은기우록〉은 비록 구체적으로 형상화해 보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연청의 죽음까지를 서술하고 있는 반면, 후편 〈명행정의록〉은 위연청의 치사낙향을 끝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에 설정된 서사 시간 편폭은 후편이 전편에 포함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후편에 서술된 위연청과 관련한 서사는 모두 전편의 서사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¹²⁾

III. 후편의 형성 방식

1. 선행 서사의 반복과 변주

본절에서는 〈명행정의록〉에 형상화된 인물이나 사건, 배경이 앞서 설정되었던 것을 반복하거나 변주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물 설정의 반복 양상을 소예주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위천보의 次位가 되는 소예주는 위연청이 진국과 서번을 평정하고 반사하는 광경을 구경하던 중 위천보를 보고 한 눈에 반하게 되는데, 그때를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만득 강선뉴 상의 간장을 살오던 장·설의 심스와 일반이라 쪼 언너로 조조
니소저의 경친 옥낭이를 셰드르니 조괴 반성 조부호던 므음이 혼 그린 쩌이
되였는지라 심귀상언호여 『마니 탄식호여 줄오더』나 소예죽 일노조조 숙네
되지 못할 거시오 쪼 녀교더로 행신치 못할리니 밍셰호여 장시의 므음을 고
치며 설시의 도를 빙홍 갖치 아니할리라.(권3)

12) 전편은 위연청의 치사낙향이 명나라 목종 때라고 서술한 반면, 후편에서는 명나라 신종 때로 서술되어 있다. 이를 가지고 후편의 서사 시간이 전편의 경우보다 더 길어진 것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본고에서 쓰고 있는 서사 시간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전·후편의 차이가 단순 착오에 따른 것인지 혹은 전·후편의 생성과 관련한 어떤 조건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밀줄 친 부분은 〈보은기우록〉에서 강선루를 지어 놓고 조회에 오가는 신료들을 보며 배필을 자택하려던 장미주와 설소아의 일을 말하는 대목이다. 소예주는 평소 장·설 두 사람에 대해 ‘여자의 몸 나오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자기 역시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심사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는, 장·설 두 사람이 결국 위연청과의 결연을 포기한 행적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 다짐한다. 이후로 구현옹의 필적을 구하여 위천보와의 혼인을 주도면밀하게 성사시키고 元位 이월혜를 축출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수많은 사건들을 빚어내게 된다.

소예주가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사건은 후편에서 본격적으로 형상화되는 첫 사건으로 후편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여러 차례에 걸친 원위 이월혜 모함과 제거 시도는 수많은 하수인과 관련 인물들을 동원하게 되면서 그 분량도 상당히 늘어난다. 원비를 모해하여 각종 惡事を 자행하던 소예주는 결국 모든 일이 발각되면서 유배당한다. 그런 가운데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소예주는 이월혜에게 가했던 수법 그대로를 되풀이하여 자신이 당하면서 결국 대오각성하여 개과하게 된다. 결국 소예주는 전편의 장미주와 설소아를 전제한 인물로서 동일한 사건 모티프의 다른 전개양상을 보인다.

작가가 앞서 등장한 인물을 의식적으로 전제하여 새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기존의 인물에 견주는 것은 장미주·설소아→소예주→교강선의 경우만 아니라 백승설→문창공주, 위연청→위천유 등의 예에서도 확인된다.¹³⁾ 인물 설정

13) 소예주 인물형은 다시 위천강과 결연하여 원위 양현강을 모해하는 교강선으로 이어진다. 교강선은 원비를 모해한다는 기본 동기뿐만 아니라 실제 일으키는 사건 양상도 소예주가 유발한 악행 가운데 일부를 담습하는 방식이다. 그런가 하면 교강선과 위천강의 결연이 논의되자 위부 인물들은 이월혜와 소예주의 일을 거론하면서 앞날을 근심한다. 혼례를 치른 후 교강선을 본 위연청의 장인 백양은 ‘신부(교강선) 쇼쇼부(소예주)의 말석의 참예호여 웃비와 척률 잡암죽호니 양시를 위호여 근심되도다(권48)’ 라며 교강선을 소예주에 견주어 발언한다. 또 실재 교강선의 모계로 양현강에게 혐의가 생기자 ‘반드시 니부인의 일이 죄 낫도다(권49)’ 라며 탄식한다. 지속적으로 등장인물들을 통해 교강선이 소예주를 모델로 설정된 인물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위천유와 문창공주를 위연청과 백승설 부부에게 견주는 서술은 작중에 누차 반복된다. 백승설의 부친 백양이 문창공주를 본

의 이런 방식은 사건의 반복, 변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위연청을 죽이고자 자객으로 왔다가 그 인품에 감동하여 수하가 되는 왕손협이 똑같이 자객으로 왔다가 위천유의 수하가 되는 마량으로 다시 설정되는 등 작품 전반에 걸쳐 앞서 설정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인물, 그리고 그들을 통해 형상화 되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장시 스문지녀로 변착청의 흐고 즈욕기신호여 남을 소기를 조초 음욕을 그쳐 저 도라오미 쏘 췄을 고쳐 다른 디 셔방 마쓰니 이는 실절노 다르미 업고 설시 스스로 군즈 귀(歸) 험만 알고 몸 나오는 법을 일허 몸소 혼야의 소미를 잡고 이걸흐니 만일 진공의 허흐를 어더 안희 되던들 무숨 낫초로 저의 쥬중흐를 밟고저 헤던고(권3)

소예주가 장, 설 두 여인을 비난하는 대목이다. 소예주의 비난 속에서 작가의 전편 서사에 대한 변주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장미주가 위연청을 연모하여 그 집 시비로 잠입하였다가 결국은 마음을 돌이켜 왕경린에게 시집 간 것을 두고 失節이라 한다. 또 설소아는 비록 위연청의 아내가 되었더라도 그 비례지행으로 인해 낯을 들 수 없었을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소예주는 장미주나 설소아와 같은 처지에서 다른 결과를 향해 나아간다.¹⁴⁾

후 위천유에게 ‘얼프시 여모(汝母-백부인 지칭)의 거동과 흡스흐니 엇지 괴이치 아니리오’, 다시 위천유의 말을 듣고는 ‘네 말이 완연이 네 대인(위연청)갓트니 노 죄 빛지 못흐를 붓그리노라(권24)’라고 말하는 경우나, 위천유가 백공을 시침함이 ‘온온근근히며 동동촉촉흐미 흡연이 진공이 태스를 뵈심갓트니(권24)’의 경우처럼 등장인물이나 서술자의 진술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위천유와 문창공 주가 결의남매하는 광경을 보고 백승설의 유모가 ‘갓만이 줄오더 괴이한 일이오 공교흔 바는 금일 거동이 완연이 국공노애(위연청) 우리 부인으로 영신원 갓온 더서 만나샤 상더결의흘 격파 일호 다른미 업더 헤니(권24)’에서도 볼 수 있다.

14) 후편에서 작가가 소예주 관련 서사에 아주 공을 들인 것은 장미주나 설소아와 관련한 서사에 대한 석연찮음을 풀어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장미주나 설소아와 같은 처지에 처한 소예주는 장미주처럼 마음을 돌이켜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거나, 설소아처럼 비록 결연을 이룬다 하더라도 온전한 부부 관계를 누릴 수 없을 그런 결과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그 악행의 경증을 떠나서 소예주는 악인임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인물로 변호된다. “(위천유가 그 형 위천보에 게) 다만 쇼슈 잠간 치죄 너모 과흐스 덕을 니끼미 겨시나 청결고슈흐여 널녀결

한편 위천보를 비롯한 위연청의 자식들은 모두 少年登科하여 出將入相하는데, 이들이 보여주는 행적 역시 선행 사건을 반복, 변주하는 양상을 보인다. 위천보를 비롯한 세 아들이 어사나 감찰관이 되어 지방을 순무할 때 그들이 해결하는 여러 사건들에서 이런 점은 특히 부각된다. 위연청이 맡은 바 있는 철강순무안찰사의 역할은 위천보와 위천유가 차례로 맡게 되는데, 위천보의 경우는 전편에서 모친 백승설이 위연청의 목숨을 구할 약을 얻고자 구현옹을 찾아 떠난 길을 담습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위천유의 경우는 새소리로 살인사건을 해결하여 ‘석년의 진공(위연청)이 가마 괴 쇼리 를 드러 니럼의 살인을 명각함과 갓흔(권39)’ 양상을 반복하고, 위천보가 번이를 평정한 것은 ‘완연이 진공이 셔진을 평정호여실 격 갓흔’ 것으로 앞서 나온 서사와 결부된다.

〈명행정의록〉의 서사는 앞서 설정되었던 인물형이나 사건의 화소, 배경 등을 반복, 변주해 가는 양상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¹⁵⁾ 이러한 특징은 명행정의록이 전편 〈보은기우록〉에서 설정된 서사 시간을 넘어서지 않고 오히려 그 범위에 내포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父子代의 서사를 각각으로 하여 전·후편이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대하연작소설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의 측면에서는 후편이 전편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전·후편의 서사를 재구성해 본다면 전편의 서사와 후편의 서사가 교차 배열되면서 서로 맞대웅시켜 볼 수 있는 사건이 짹으로 존재하는 양상이 된다.¹⁶⁾

부의 미진호미 업고 쪼 더스를 능당호며 결단이 강밍호시니 당금의 씨앗지 못
호미 겨셔도 타일의 반드시 초세호 스업을 호실거시니 형장은 너모 과도호 성
각을 마로쇼서(권35)와 같은 소예주에 대한 궁정적 진술을 누차 반복되는데, 소
예주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작가의 시선은 이런 의도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 15) 〈명행정의록〉의 이런 양상은 대하소설의 서사가 유형성이 강한 단위담을 결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는 달리 논의되어야 할 특징이다. 〈명행정의록〉의 서사가 특이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많은 유형의 단위담 가운데 몇몇 서사 요소를 작품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산하는 것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 16) 〈명행정의록〉은 〈보은기우록〉이 위연청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위연청의 3자1녀를 모두 중심으로 한 서사를 결구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대작이다. 때문에

고전소설의 서사가 아주 유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명행정의록〉이 선행 서사를 반복·변주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있다. 〈명행정의록〉의 서술자 역시 작품 중에 형상화되고 있는 서사가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예전의 '무엇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밝혀 지속적으로 선행 서사와의 관련을 환기시킨다.

전통적으로 역사의 보완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소설¹⁷⁾은 그러므로 자립적, 자족적인 서사를 표방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미 권위를 인정받은 역사 서사와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소박하게는 작품의 서사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조차도 구체적인 시대 배경을 밝히면서 시작하는 것이나,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 상황, 실존 인물들을 작중 서사 속에 결합시켜 놓는 것 등 그 수준과 양상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명행정의록〉은 전편의 서사를 기반으로 형상화되면서 역사 서사와 전편의 서사를 동일한 위상에 두고 권위를 부여한다. 이런 양상이 모두 허구로서의 작중 서사가 존립할 수 있는 권위를 빌어오는 것이라는 점은 공통인 것으로 보인다.¹⁸⁾

2. 인문지리적 지식의 활용

본절에서는 〈명행정의록〉이 전편의 여러 서사 요소들을 반복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전편과 변별되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점으로서 서사 공간과 관련한 인문지리적 정보의 서술을 자적할 수 있을

소예주를 모델로 하는 '교강선'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명행정의록〉은 전편의 서사만이 아니라 그 자체 선행하는 서사를 반복, 변주하는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17)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홍상훈,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중문과 박사학위논문, 1999 참조.

18) 소설의 서사가 역사적 전고를 의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소설의 서사를 차기 서사의 존립 기반으로 삼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이 작품 단위로 발전한 것이 연작 양식의 발생을 가져온 한 가지 배경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는 차후 논의해야 할 과제로 밝혀둔다.

것이다.

권13부터 권18까지 형상화되는 위천보의 절강순무여사 활동은 공적인 임무 수행보다는 부모의 고향인 이 일대를 답사한다는 의미가 크다. 전편에서 위연청이 그 아비 위치덕에게 맞아 절명의 위기를 겪은 토지묘 일대를 둘러보아 그 지극한 효성을 기리고, 영은사에 남겨 둔 위연청의 시 아래 다시 이어 시를 짓는다. 백승설이 媚樓에 팔리어 고초하던 영신원을 찾아보고, 목숨이 위태로운 위연청을 구하고자 백승설이 구현옹을 찾아다니던 천목산, 용봉산 등을 둘러본다. 각지에 남아 있는 부모의 유적을 찾아 그때의 고행을 기리고, 토지묘에서의 사건 이후 지병이 생긴 위연청을 구할 약을 얻고자 백승설이 구현옹을 찾았던 길을 위천보가 다시 간다.

백승설이 용봉산을 올라 구현옹을 만나는 대목과 위천보가 용봉산을 올라 구현옹을 만나는 대목은 보다 직접적인 대비가 가능하다. 전편에서는 백승설이 뉴한의 처 진씨와 함께 산을 오르다가 좀더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혼자 구현옹이 있다는 산 정상을 향한다. 그후 반사곡 앞에서 만난 호랑이에게 업혀 구현옹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술되는 산은 연약한 백승설이 혼자 오르기에는 너무 힘하다는 정도로 드러날 뿐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험한 산 일반의 추상일뿐, 용봉산이라는 대상의 구체적 양상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후편에서도 시종 청운과 함께 하던 위천보는 仙凡의 길이 다르다고 하면서 혼자 산에 오르기를 주장한다. 그런데 후편에서 서술되는 산은 실재하는 공간으로서 그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동서로 나뉘어 있는 천목산과 용봉산 일대의 境界를 비롯하여 산을 노래한 꽈박의 시 구절이나 천목산 銘의 한 구절, 산 중에 있는 여러 탑과 봉우리들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그 지세와 관련 고사들을 서술한다.

꽈박의 시에 니르디 천목산슈양유장 호니 농비봉무도전당이라 호니 그 뜻은 천목산 두 젖술 두리워시니 농이 놀고 봉이 춤추어 전당의 니르다 말이라 ...
뫼히 명이 잇서 농지등에 삭여시니 명의 줄오더 널악하표요 군봉무리라 쥐적
현만호니 명불가고라 호여시니 이 뜻은 머러는 뫼히 안기 밧기요 모든 뫼히
안기 속이라 프론 거시 너봉만의 써려지니 일홈을 가히 고록지 못혼다 말이

라 ...

이 뵙히 열여덟 고이호 봉이 있고 네 쌈혀는 당이 있어서 충충호 터되 천만² 지니 입으로 다 고록지 못하나 이는 다 소인목직의 혼히 본 곳이오 그 중 상 비봉은 네 녁히 다 절벽이오 가온더 돌 젓시 드리워 형상이 코기리 굿트니 전호여 니르더 봉 으리 훤 진남이와 옥병과 침향 세 그지 보비 있다 흐고 선고암은 김흔 굴형을 격호여 그온더 석救济 있어서 수면을 보면 드리워 둘이 탑 굿트여 가히 조리를 편죽하니 서선의 누의에서 비승하다 흐고 운선당은 허 진군이 북두의 네호던 곳이오 장공소는 한 텐스의 숨었던 곳이오 소명봉은 소 명태즈 글 넓던 곳이오 운동암은 상회 구름이 창을 가리와시니... (권15, 밀줄 부분은 작품 내에서 細註의 형식으로 서술된 것임.)

백승설과 위천보 母子가 같은 공간을 같은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그런데 전편에서는 작품 줄거리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비교적 간략히 서술해나간 반면, 후편은 줄거리와는 크게 관련 없지만 배경 공간과 관련한 여러 인문지리적 지식을 부가함으로써 훨씬 풍성한 독서물로 변모한다. 이런 양상은 위천유나 위천강이 지방 순무를 떠날 때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양상이다.¹⁹⁾

〈명행정의록〉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수많은 韓譯 한시도 사건의 진행과는 크게 관련없이 등장한다. 다만 〈명행정의록〉 권58에는 위혜주가 외조부 백공의 명으로 지은 백연시를 새가 물어다 사몽성에게 전함으로써 이들의 결연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여기서도 물론 시 자체가 사건 전개에 있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를 중심으로 하여 사건 전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간접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행정의록〉에 등장하는 많은 韩譯 한시들이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²⁰⁾

19) 공간 배경의 설정 가운데 특히 양주와 항주를 포함한 절강 일대는 절강순무여사 직책을 전편에서 위연청이, 후편에서는 위천보와 위천유가 맡게 되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자주 등장한다. 그러면서 전편에서와는 달리 후편에서는 훨씬 많은 지리적 정보가 서술된다고 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사대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변진 西湖熱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만한 양상으로 보인다. (정민, 「16·17세기 조선 문인지식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구』 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참조.)

20) 대하소설에서는 작품의 서사 진행과 크게 관련없이 연희나 잔치 장면이 장황하게

〈보은기우록〉의 경우도 韓譯 한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정도를 비교해 볼 때 〈명행정의록〉의 경우는 君臣, 一家가 모여 시를 짓는 경우마다 거의 빠짐없이 서술한다. 또 좌중의 시를 모두 서술하는데 비해 〈보은기우록〉은 시를 지었다는 요약적 서술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시를 서술하는 경우에도 위연청의 시에 한정하여 서술한다. 작품의 서사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작품의 서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온갖 지리적 정보나, 혹은 그곳과 관련한 많은 인문지리적 지식,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술되는 많은 韩譯 한시들은 〈명행정의록〉의 독자들이 훨씬 다양하고 풍성한 독서 체험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런 점은 자칫 선행 서사의 반복, 변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지리함을 충분히 상쇄시키고 있다.

한편 〈명행정의록〉이 선행 서사를 반복, 변주하는 가운데 서사의 진행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대목을 이렇게 확장 서술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작 작품군의 독립적 향유 가능성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은기우록〉은 많은 대하소설들과 마찬가지로 그 향유와 관련한 당대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명행정의록〉은 심농숙의 〈옥수기〉를 한글로 옮긴 남윤원의 발문²¹⁾에 훌륭한 작품의 하나로 언급되어 당대 향유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은 하나의 연작을 이루는 작품군이 연작이라는 여러 표지들을

서술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그 구성원의 화목과 중심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는 특별한 서사적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명행정의록〉의 韩譯 한시들 역시 마찬가지의 양상이다. 상대적으로 〈명행정의록〉에서는 잔치의 풍성함이나 화려함을 서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과 대비해 보면 이를 통해 여타 대하소설과 변별되는 〈명행정의록〉 향유총의 성향을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많은 대하소설들과 함께 전해온 낙선재 소재 중국소설번역본들이 대체적으로 시를 번역에서 제외한 것 역시 〈명행정의록〉 향유총을 변별하는 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 둔다. 중국소설 관련 사항들은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사료총고』, 아세아문화사, 2001 참고.

21) 더져 이 칙 하회로 볼진더 가·화·왕·딘 스가 후진의 소설을 이어 일우면 남화정연과 명횡정의로 더부러 스양치 아니호을 듯(심농숙, 〈옥수기〉,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11』, 아세아문화사, 1980, 747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독자들의 독서 과정에서는 그리 강한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추론하게 한다. 다시 말해 독자의 입장에서는 연작 전편의 독서 체험이 후편을 읽어가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²²⁾

어떤 작품군을 연작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서사적 연계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세대록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실제 독서의 과정에서 그런 서사적 연계가 결정적 조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면, 전편을 읽지 않고 후편을 읽는 독자가 작품에서 추구하는 것은 서사 추이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통해서 하기 보다는 그밖의 다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맷음말

본고에서는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 연작의 특징적 양상을 후편이 형성된 방식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보은기우록〉 연작은 전·후편 각각이 주인공 위연청과 그 자식대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대하 연작소설의 연작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은기우록〉은 주인공의 성장과 환로 생활을 중심으로 작품을 형상화하면서 致仕 이후 만년의 삶은 요약적으로 서술해 놓고 그것이 자녀대의 여러 사건들과 함께 후편에서 형상화될 것임을 밝혀 두었다. 그런데 〈명행정의록〉은 주인공 만년의 삶을 형상화하지 않고 치사 낙향의 시점까지만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명행정의록〉의 여러 사건들은 〈보은기우록〉의 서사 시

22) 이런 점은 〈천수석〉과 〈화산선계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화산선계록〉은 홍희복의 『제일기언』 서문(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1』, 고려대 중국학 연구회, 1984)이나 『諺文古詩』 중 언문책목록에 그 작품이 언급된 반면 〈천수석〉은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남윤원이 〈명행정의록〉을 거론한 것은 작품의 수준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보은기우록〉 인식 여부를 추론할 수 없지만, 『제일기언』 서문이나 언문책목록에 연작 전·후편이 나뉘어 기록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은 연작을 이루는 작품군이 그리 강한 결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간 속에 포함되게 된다.

『명행정의록』은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 여러 측면에서 선행 서사를 반복, 변주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편에서 설정되었던 인물형이 후편에서 다시 설정되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 역시 일정한 반복과 변주의 양상을 보인다. 더불어 작중 공간 역시 앞서 등장한 바 있는 공간을 다시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보은기우록』과는 달리 공간과 관련한 많은 인문지리적 정보를 서술한다.

『명행정의록』은 작중 공간에 대한 구체적 지형, 지세를 마치 지리지를 옮겨 놓은 듯 서술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많은 역사적 전고나 문예물 등을 함께 서술해 놓고 있다. 그 결과 전편에서는 단순히 작중 사건의 배경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던 공간이 그 자체로 또다른 향유의 대상으로 변모한다. 이런 양상은 서사의 반복, 변주가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으며, 수많은 韓譯 한시들 역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연작 전·후편의 관련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많은 특징들이 온전히 드러나지는 못하였으며 이는 차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 양상이 대하 연작소설 일반의 양식적 특징으로서 어떤 의의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남은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기동,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이조연작소설연구1」, 『도남 조윤제박사 고희 기념 논총』, 형설출판사, 1976.
-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 장편소설의 창작방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신선희, 「고소설에 나타난 부의 구현양상과 그 의미」,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
- 이대진, 「〈보은기우록〉의 구조와 수용양상」,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상택, 「낙선재본소설 연구-그 예비적 작업으로서의 혼사장애주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 이재춘, 「〈보은기우록〉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0.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연구』, 태학사, 1996.
-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1, 고려대 중국학 연구회, 1984.
- 정민, 「16·17세기 조선 문인지식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구』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 정병욱, 「낙선재문고 목록 및 해제」, 국어국문학 44·45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9.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 조희웅 편, 『고전소설이본목록』, 고전소설연구자료총서1, 집문당, 1999.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89.
- 홍상훈,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중문과 박사학위논문, 1999.